

## 학술원상 및 예술원상 수상자 30여명과 접견 다과회

21세기는 문화의 세대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왕 차범석 회장님, 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석하신 수상자들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59년 중학교 1학년 때 음악선생님이 “프랑스에 가면 학술원과 예술원이라는 게 있는데 학술원 예술원 회원은 대통령보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안감이 빨간 망토를 입는데 이 옷은 아무나 못 입습니다. 회원이 아 사람이 이 옷을 입다가 걸리면 사형 당합니다.” 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술원 예술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학술원 예술원이 있습니다. 행정을 점점 가까이 하면서 학술원과 예술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니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전통을 오랫동안 갖고 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기여한 분들을 표창함으로써 그분들이 공로를 높이 선양하고, 모두가 학술 예술에 기여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21세기 하면 ‘세계화 시대’, ‘정보화시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된 후 ‘문화의 시대’ 라는 말을 꼭 보태서 얘기합니다. 세계화 정보화라는 말로 포괄하기 힘든 목표가 문화입니다.

다. 학술 예술이 다 문화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잘 산다’ 는 말을 할 때 옛날에는 ‘먹고 산다’ 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품위 있게 산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 있게, 품위 있게 사는 것은 문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화에 대한 것을 잘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해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유명한 작가를 모실 때 코트를 어깨에 얹어 준 것으로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는 얘기가 여러 얘기 중 가장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 해외에 나가 있는 중 몸이 편찮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 모시게 했다는 얘기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해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다지고, 우리나라 학술과 예술을 발전시켜온 분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좋은 말씀 해주기 바랍니다.